新年隨想

구성진 '마음 타령' 불러보자

성태용
건국대 명예교수





그림 · 김홍인

'항상 웃으시는 이.' 이를 부처님 당시 사람들이 부처님을 부르던 하나의 칭호라는 것을 아는 불자들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여래, 응공, 정변지, 명행족 등으로 이어지는 부처님의 십대 명호보다 얼마나 정감있고 친숙한 이름인가? 이런 이름으로 부처님을 부르면 훨씬 부처님을 우리 곁에 가까이 모실 수 있을 것 같지 않은가.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라는 딱딱한 귀의의 말보다 "항상 웃으시는 부처님을 본받고 배우겠습니다"라는 말로 우리 가까이 부처님을 모실 수 있을 것 같지 않은가?

우리 불자들에게 부처님은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먼 당신' 이 되어버린 듯 하다. 실제로 필자가 어떤 대형 사찰의 법회에 강설을 맡았을 때, "부처님 되고 싶은 분 손들어 보세요"하고 물었던 적이 있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으로 그 법석에 있던 분들 가운데 1/10 정도만 손을 들었었다.

그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 법회 끝날 때마다 "성불하십시오" 또는 "성불합시다"로 인사를 하는 분들이었는데…. 부처가 되라는 것은 남에게만 권하고 자신은 되지 않겠다는 마음을 잡숫고 계신 분들이었던가?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실제로는 그런 물음을 던졌던 필자도 부처되겠느냐고 스스로에게 물었을 때 뭔가 머뭇거리던 체험을 했고, 그 원인을 찾아본 적이 있었다.

첫 번째는 부처님 되고자 하면 너무나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할 것 같은 마음, 욕망에 뿌리한 끈질긴 미련이었다.

두 번째는 바로 앞에 이야기한 대로 부처님이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먼 당신' 이라는 관념 때문이었다. 그것이 필자가 겪었고, 또 극복하려 노력하고 있는 부처님과 나와의 거리였다.

아직도 그 거리를 완전히 극복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필자 나름으로는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그 노력의 방법 가운데 하나가 '항상 웃으시는 이' 로 부처님을 생각하고, 멀리 두고 귀의하기보다는 나의 삶 가까이에 모시고 본받으려는 마음으로 부처님을 대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와 비슷하게 불자이면서도 부처님과의 거리를 좁히지 못하는 분들에게 이 방법을 권해보기도 한다.

새롭게 열리는 한 해를 맞으면서 올해는 정말로 더더욱 '언제나 웃는 이' 의 모습을 내게서 펼쳐낼 수 있기를 새삼 기원한다. 지금까지 그렇게 되지 못했던 원인을 찾아보면 결국 나의 성숙하지 못한 마음 때문이었고, 보다 크고 올바른 목적을 지향하는 나의 서원이 굳건하지 못했던 때문이었다. 화내고 성질피우고 우울해하던 때를 뒤돌아보면 그 바탕에는 그러한 자책이 뒤따르곤 했었다.

결국 "올해는 조금이라도 더 부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삶을 살기를"하는 다짐 속에서 생각하는 것은 "올해는 어떻게 작년보다 좀 더 나울 수 있을까"가 아닐 수 없다.

끝없는 시간의 흐름 속에 새로운 한 해라는 단위를 설정하고, 그 속에 새로운 다짐을 해 갈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의미있는 일인가? 그런 점에서 늘 상투적인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한 해 한 해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것을 우리 불자들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의 영원한 목표인 사홍서원을 조금은 자잘한 시간과 공간의 단위로 나누어 세워보는 것이 되지 않을까 싶다.

우리들이 부처님의 모습을 우리 삶 속에 바로 투영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또한 사홍서원과 같은 큰 서원이 우리가 실천하기에는 너무나 크고 아득한 서원이라는 점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언감생심, 내가 어찌 모든 중생을 다 건진단 말인가. 번뇌를 다 끊고, 불법을 다 배우고, 불도를 다 이루는 아득한 길. 늘 입으로 외면서도 실제로 걷으려 마음을 먹으면 그 아득함에 기가 질려버리는 불자는 없을까.

필자 자신도 그런 느낌에 '입으로만 불자' 로 지낸 시절이 얼마나 길었던가? 지금도 여전히 그 처지를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것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첫 걸음을, 바로 그 아득한 사홍서원을 '오늘, 여기' 의 서원으로 구체화하는 길뿐이라고 말할 수는 있게 됐다.

모든 중생을 생각하기 전에 내 곁에 있는, 나의 손길을 가장 필요로 하는 존재들을 생각하자.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일이 바로 모든 중생에게로 나가는 첫걸음 아니겠는가.

모든 번뇌를 끊는 일, 그것은 나를

'항상 웃는 분' 부처님의 칭호
언제나 웃는 부처님을 본받아
스스로 항상 웃는 자성불 되길

개인 수행에 머물지만 말고
조금 더 나아진 세상 만들자
그것이 '불국토 건설'의 시작

가장 괴롭게 하는 번뇌를,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 올바로 바라보고 극복해나가는 길을 찾는 일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불법(佛法)을 다 배우겠다는 서원을 생각하면 나 자신이 참으로 부끄럽다. 과연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을 경전 등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는가를 묻게 되는 것이다.

올해는 정말 목표를 정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울 계획을 세워보자. 또한 나를 향상시키는 수행방법을 정하고 꾸준히 삶 속에서 수행을 이어나가는 자세를 가져보자. 늘 반복되는 새해의 다짐일 수 있지만, 작년과 올해의 상황이 다르기에 그 구체적인 내용 또한 다를 수 있다.

하나하나의 항목들을 점검하고 반성하면서, 올해의 사홍서원을 세워나간다면 나의 삶 속에 부처님을 가까이 모시고 닮아가는 일도 점점 더 치열해질 것이다.

이런 나의 개인적인 바람이 모든 불자들의 바람들과 이어져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좋은 세상으로 바꿔 나가는 길, 그것이 바로 불국토의 건설이라고 생각한다. 부처님과 서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불국토 건설' 이라는 목표도 너무도 크고 아득하기만 하여 구호에 그치는 목표가 되고 마는 것 같다. 그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구체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세상, 그것을 우리들의 힘으로 이루어 나가는 그 길이 바로 불국토 건설의 길이 되어야 할 것이다. 불교가 개인 수행에 머무르지 않고 이 세상을 바꾸어가는 힘있는 종교가 되어 가는 길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필자도 오랫동안 빠져서 헤어나지 못했던, 이제 조금 거기서 벗어나고 생각하고 있는, '마음 타령' 에 멍든 불교를 극복할 길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 싶다. 마음이 바로 세상이고, 거꾸로 세상이 바로 마음이다. 모든 것을 마음에서 해결하려는 것이야말로 잘못된 '마음 타령' 이다.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바로 마음을 닦는 일이라는 역동적인 구조에 설 때 바로 올바른 '마음 타령' , 구성지고 멋들어진 '마음 타령' 이 나올 것이다. 올해는 나와 우리 불자들이 함께 이 구성지고 멋들어진 '마음 타령' 을 부를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우선 행복하게 웃을 수 있다.

조금 더 나은 세상, 나와 우리를 괴롭게 하는 요소가 하나라도 줄어든 세상, 그 세상을 함께 꿈꾸어 보자. 우리 불자들이 모두 부처님 법에 조금이라도 가까운 세상을 그려 보자.

社說

소통과 화합의 기해년 기대한다

기해년 황금돼지해가 밝았다. 복을 상징하는 돼지와 재물을 의미하는 황금이 만난 만큼 많은 사람들이 2019년 한 해 복덕이 가득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런 바람은 세간과 출세간, 일반사회와 불교계 역시 다르지 않다.

무술년 묵은해를 돌아보자. 불교계는 사실상 1년 내내 갈등하고 반목했다. 한국불교 현대사에서도 유례가 없는 조계종 수장의 친자의혹으로 홍역을 앓았다. 사실관계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은 사안이기에 시비를 논할 수는 없으나 의혹이 제기됐다는 것만으로 불교계는 지탄을 받았다. 당연한 일이다. 이로 인해 종무행정이 마비되고 연간 사업은 중단됐다. 사회에서 소위 '잃어버린 8년' 을 외쳤다면 불교계는 1년을 잃은 셈이다.

그래도 첨예했던 갈등을 딛고 불교계는 다시 안정을 찾고 있다. 무술년 막바지에 새 수장이 선출되고, 중단된 사업들이 재개되기 시작하면서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다.

한국불교 장자종단 조계종은 갈등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소통과 화합' 의 가치를 꾸준히 강조했다. 수많은 종도와 사부대중도 이에 공감하고 있다. 그렇기에 "소통과 화합으로 미래불교를 열겠다"고 선언한 조계종에 한 해 동안 이목이 집중될 터다.

어제의 해는 이미 1년 전으로, 그리고 과거로 사라졌다. 그렇게 우리는 늘 그토록 의미를 부여하는 새해 첫 날에 섰다. 물론 어제와 지난해, 과거와의 단절은 아니다. 모든 것이 연기이고 맞물려 돌아가는 세상이다. 불교계가 먼저 소통하고 화합하며 사회의 모범이 된다면 이는 곧 사회의 변화로, 시방세계의 정토화로 이어질 것이다.

독립운동 불교역할 재조명 기회로

올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불교의 역할을 재조명하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펼쳐질 예정이다. 동국대 만해연구소가 만해로드대장정을 시작하고, 부산불교계가 범어사 명정학교에서 만세운동이 펼쳐진 역사를 알리는데 나선다.

이와 함께 장수 죽림정사는 2000일 기도에 입재했으며, 불교사회연구소와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등도 대형 학술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다.

3.1운동은 일제의 강점에 맞서 자주독립을 평화적으로 외친 세계사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이런 운동의 한가운데 불교계가 있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불교계의 역할을 재조명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동국대 전신인 중앙학림, 범어사, 해인사, 통도사, 동화사, 김용사, 마곡사 등 사찰 스님과 신도대중은 만세운동을 주도했지만 주목받지 못했다.

불교계 인사들의 독립운동 참여도 아직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 3.1운동 이전에도 의병활동의 근거지가 된 곳이 산사였다. 백범 김구가 마곡사에 몸을 숨기고 윤봉길 의사가 의거 전 김구 선생에게 계를 받은 것 등 불교계에 숨은 이야기도 많다.

하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스님들은 만해, 용성 등 일부이며,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런 내용을 알지 못한다. 국가로부터 인정 받은 사례도 적어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은 불교계 인사도 84명에 불과하다.

3.1운동 100년을 맞아 일제강점의 암흑기에서 불교계가 어떻게 대중들의 희망이 되고 빛이 되었는지를 우리는 살펴야 한다. 부처님 가르침이 역사 현장에서 활발발하게 전개됐음을 살펴야 하는 것은 불자들의 과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51)405-9402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대 구 지 사 : (053)768-8008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65세이상 승려 연금 지급 종단
불교조계종
계율청정종단

▪ 종 정
총무원장 : 혜인 사서실장 : 천산 율 원 장 : 혜일 방 장 : 대련, 혜경 의산장(경기도무형문화재) : 수원
중앙선원장 : 도일 혜정, 일봉

▪ 원 로 원 : 혜일, 혜정, 일봉, 혜경, 천불, 수원, 혜원, 지성

▪ 총 무 원
부원장 : 동안, 도불 서봉금산
총무부장 : 법성
재무부장 : 혜만
교무부장 : 혜일
사회부장 : 동오
문화부장 : 태산
총무국장 : 남산
재무국장 : 정일
교무국장 : 율조
사회국장 : 법일
문화국장 : 호산
문화재관리국장 : 진각
교육원장 : 무공
교육부원장 : 덕산
교육부장 : 법광
교육국장 : 진산
포교부장 : 송산
포교원장 : 정산
포교부원장 : 도명
포교국장 : 영암
국제포교원장 : 천산인월
기획원장 : 혜타
기획실장 : 대덕화
호계원장 : 법철
호계부장 : 태산
규정부장 : 법산
규정국장 : 지산
호법부장 : 법안
호법국장 : 지호
감찰원장 : 정오
감찰부장 : 백산지견
감찰1국장 : 금산
감찰2국장 : 인산

비구니 회 장 : 지성
부 장 : 혜승
교수사 : 덕산
총 무 : 금산
부회장 : 혜산, 해원
재 무 : 도은, 정해
교 무 : 본각, 수정
교 육 : 보림, 성담
문 화 : 남산, 진화
포 교 : 보명, 홍산
강 원 : 각원, 해인
복 지 : 화광, 무연
감 찰 : 서호, 보현
불 화 : 혜담, 인산
의 식 : 련성, 지해

▪ 지방교구 종무원장
서울종무원장 : 현조
경기종무원장 : 도불
경기서부종무원장 : 자명
경기남부종무원장 : 해인
인천종무원장 : 혜원
강원종무원장 : 광덕
충북종무원장 : 학산
충남종무원장 : 혜덕
경남종무원장 : 백산 지견
경남남부종무원장 : 천산
경남창원종무원장 : 지원
경 북 종 무 원 장 : 덕운
부 산 종 무 원 장 : 서봉 금산
부산북구종무원장 : 수산
전남광주종무원장 : 지각
광 주 종 무 원 장 : 지각
전 남 종 무 원 장 : 도명
전 북 종 무 원 장 : 법성
제 주 종 무 원 장 : 청호
울 산 종 무 원 장 : 법철
일본오사카종무원장 : 인해
일본동경종무원장 : 정대
미국뉴욕종무원장 : 성산
중국남경종무원장 : 해산
베트남종무원장 : 청묵

▪ 불교조계종 신문사
발행인 : 혜인 편집인 문화부장 : 태산
편 집 기 자 : 나윤하 문화국장 : 황산
사회부기자 : 이근진 유현석 사회국장 : 법산
이 사 : 혜원, 정산, 각원, 덕산, 금산, 해인, 정해, 지성, 보현, 법신, 도은, 수옥, 서호, 성화, 해월, 화광

▪ 종단 법인
사단법인 불교조계종
학교법인 삼화학원
사단법인 천지무예도협회
사단법인 행복한사회
의료법인 효성
재단법인 가평그린공원
사회복지법인 정향
사회복지법인 인주

▪ 총림
서울총림 해인사
경기총림 백화사
부산총림 흥국사
경남총림 백천사
강원총림 조주선관
충북총림 청룡사
경북총림 대국사

▪ 전국신도회
전국신도회장 : 홍창석
고 문 : 설주성
수 석 부 회 장 : 윤 근
여 신 도 회 장 : 김준자
서울신도회장 : 서우연
부산신도회장 : 허 민
강원신도회장 : 김현재

▪ 청년회
회 장 : 손정일
홍보처장 : 이근진
기획대리 : 나윤하
기획실장 : 홍의현

학교법인 삼화학원
▪ 불교조계종대학림
학 장 : 혜일 부학장 : 일봉
교 수 : 해운, 진산, 태산, 덕산, 현조, 혜승
조 교 : 손정, 최정화
운영이사 : 성산, 원명, 본각, 일현, 정현, 지각, 탄공, 해남, 법해, 청호, 현덕, 일행, 동명, 무진, 만공, 무공, 가산, 진법, 용산, 여연, 도원, 대각, 법신, 혜능, 대산, 지성

▪ 불교조계종대대학림
원 장 : 혜인
교 수 : 상산, 정수, 송암, 성민
운영이사 : 광운, 도의, 영봉, 성해, 성하, 지원, 혜법, 성공, 수원, 법우, 혜현, 지운, 지해, 도각, 동덕, 무량, 혜철, 정현, 철산, 덕산, 덕송, 진평, 동안, 진제, 연각, 성묵

▪ 남경중의약대학
교 장 : 혜 인
부 교 장 : 손영진
한국총장 : 홍창석
교학처장 : 손 정
학생처장 : 지안영
운영이사 : 법정, 혜담, 보현, 본각, 수옥, 향인, 수정, 현조, 금산, 지해, 지성, 원산, 해월, 성담, 화광, 진화

총무원 :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6길 (논현동 2-14 2층)
총무국 : (02)511-2026~7 / 팩스 (02)511-2028
종단사업부 : (02)549-1918
총 무 원 장 실 (02)511-1080
불교조계종신문 (02)511-2026~7
일간동국신문사 (02)511-1080
인터넷주소 : 불교조계종.kr(www.jogyebuddhism.or.kr)
불교조계종신문 : www.buddhijogyesm.co.kr
불교조계종학림 : www.njutcm.co.kr
남경중의약대학 : www.njutcm.co.kr
E-mail 주소 : samhwade@hanmail.net
samhwade@naver.com